

투데이 칼럼

북한 미래세대의 진심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참석한 평양 서포지쿠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4천 100세대 대규모 살림집 건설 현장인데 다른 공사 현장과 달리 군인들이 아닌 청년들이 짓고 있다.

김 위원장도 착공식 연설에서 청년이란 말을 무려 4차례나 언급하며 이들을 독려했다. 또 농장과 탄광 등 현직엔 청년들을 탄원 형식으로 사실상 동원해 배치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북한 미래세대들의 속마음이다.

당국의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북한의 미래세대는 무엇보다 시장화를 직접 겪은데다 외부 문화에도 익숙해 물질적 보상을 중시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은 강도 높은 통제를 앞세우는 모양새다. 2020년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최근 북한 인권단체들이 공개했다. 남한 드라마 등 '적대 문화'를 시청하면 무기노동 교화형에 처하고 정도에 따라 사형까지 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 같은 고강도 통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김주애의 잦은 등장률 두고 미래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 다.

당국의 의도야 어떻든 북한 미



정복규
논설위원

래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을 거로 보인다. 북한의 미래세대는 핵과 미사일 개발과 함께 장기적인 체제 안보의 축으로 떠올랐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이들의 충성심을 이끌어 내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장기화한 경제난으로 당근은 마땅찮고 바깥세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경계하는 제책은 강해지고 있다.

북한은,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를 명분 삼아 집요하게 핵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이 같은 국방력 강화가 후대의 안보를 위한 길이라며 내부 선전도 벌이고 나섰다.

국가 경제, 체제 결속, 그리고 국방 문제까지, 미래 세대 얘기를 결부시키고 있다.

미래 세대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 북한만큼은 정권 유지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분석이다.

최근엔 북한 청년들이 나라를 보위하겠다고 입대를 자원하고, 이미 군을 마친 이들도 재입대를 자원한다고 한다. 이런 청년들이 벌써 14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자원에 입대하겠다는 이 충성심, 북한 청년들의 이 마음은 진짜 우리나라일까. 전국 각지에서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북한 청년들은 한미 연합연습 비난 집회를 여는 등 대규모 정치 선동에 나섰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자원입대다. 전국적으로 인민군대 입대, 북대(재입대)를 열렬히 탄원한 청년들의 수는 140만여 명에 달한다고 선전한다.

심지어 군에서 10년씩 복무한 제대 군인들도 재입대 각오를 밝혔다.

청년세대의 입대와 재입대 결의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고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외부와의 갈등 수위가 높아질 때마

다 청년들의 입대 자원을 대, 내외에 선전하며 체제 결속을 과시해 왔다.

미국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던 2017년 9월에 청년 470만여 명이 입대와 재입대를 지원하며 적대 분위기를 띄웠다. 문제는 이렇게 입대나 재입대하면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고, 실제 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까 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5년 만에 열린 조 선소년단 9차 대회에서는 이 소년단원들이 북한 사회를 이끌 미래 세대라고 선포했다. 전국에서 온 소년 소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충성동지'가 될 것을 다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대회 참가자를 각별하게 대했다. 5천 명의 소년단원들이 열흘 넘게 평양에 머물며 관광에 나섰고, 김 위원장과의 기념 촬영도 있었다. 대북 경제 국면에서도 참가 선물로 일본산 손목시계를 지급한 장면은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지금도 소년단대회와 관련한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 대회 참가를 위해 평양에 간 이 여학생은 몰랐던 병을 발견하고 김 위원장의 지시로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한다.

이런 일화를 통해 미래 세대를 중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정신과 소년단의 충성심을 적극 부각하는 것이다.

사설
어느 공무원이 만든 고향세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느 공무원이 불러온 변화를 이끌어냈다. 일본 나가사키현 히라도시에는 고향 사랑기부금의 답례품으로 해산물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해산물마다 생산자의 사연과 역사에서 착안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이른바 스토리텔링 방식이다. 이곳 생산은 신선하고 맛있다 는 호평을 받아서 인기가 있다.

답례품 생산 뒤 해마다 매출이 20~30%씩 오르고 있다.

히라도시 제철 생산 모음, 바다가 보이는 과수원 선물 같은 세트 상품화 전략도 내세웠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기부금을 내면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도 도입했다.

유효기간 없이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부자를 모았다. 포인트 소비를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바꿨

다. 나가사키현 21개 자치단체 가운데 쓰시마에 이어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히라도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고향세를 끌어 위기를 이겨냈다.

이 방식을 동원한 30대 구로 세 씨는 고향세가 히라도시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2012년부터 고향세 업무를 도맡았다. 그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결국 2년 만인 2014년 140억 원을 유치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인구 2만 9천여 명보다 훨씬 많은 3만 7천여 명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2015년과 2016년에는 3백억 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4선을 한구르다 나무히코 시장도 고향세 전문가로 거듭났다. 최근에는 고향세 관련 책까지 펴냈다. 덕분에 해마다 히라도시에 고향세를 납부하는 기부자는 2만 2천여 명, 1천만 원 이상 내는 사람도 50명이 넘는다.

전주시 용도용적률제 추진

전주시가 도시계획상 용도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상복합건물에 이른바 용도용적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 면적이 많을수록 용적률을 낮춰서 사실상 아파트화 하는 걸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에 완공된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는 주상복합 건물만 모두 7개이다 그런데 이 주상복합의 상당수는 상업 기능보다는 주거기능, 사실상 아파트 면적이 훨씬 더 많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진입도로를 도로 폭 몇 미터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리한 여건이다.

주상복합에서 이처럼 주거 비율이 크게 늘게 되면 본래 용도인 상업 기능은 위축되고 공원, 도로 같은 기반시설도 수용 한계를 넘어치게 된다. 실제로 서부신시가지는 이런

게 거주자가 늘면서 한때 계획에도 없던 학교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결정하는 용도용적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 면적이 80% 이상이면 500%, 주거 면적이 10% 미만이면 최대 9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주거 면적을 많이 지으면 층고를 낮추고, 주거 면적을 적게 지을수록 건물을 높게 짓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도이다.

용도지역을 지정한 목적대로 용도 지역 간의 위계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용도용적제 도입을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들은 상가가 많아지면 미분양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이 어렵다고 말한다.

도시계획 용도의 본래 기능을 살리겠다는 입법 취지와 정비 조합의 사업성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자제언

“혹 남몰래 촬영한 영상,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느덧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봄이 왔음을 알리는 지표들이 곳곳에 보이는 시기이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이 활짝 피어오르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나 가족,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는 계절이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기 위해 산, 들, 바다로 전국 곳곳을 찾아 여행을 즐기고 있다.

평소보다 들뜬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지에서는 음식가 빈번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각종 범죄가 발생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증

가하고 있다. 여행지 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는 강제추행, 휴대전화나 기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상업적인 용도로 찍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들을 이용한 촬영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요 여행지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촬영 카메라탐지기를 이용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와 안전벨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여행지 안전수칙을 홍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를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렌즈의 반짝거림이나 촬영음이 들릴 시, 주변 사람들과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인터넷상으로 유포될 수 있는 제2차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재미로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촬영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 인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우연, 재미로 촬영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

김양미 고창경찰서 경리계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